

96교회 표어

“기억하라.”

(전 12:1)

〈제2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님의 교회

즐거워 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는 자들로 함께 올라 (롬12:5)

발행인: 남녀연합선교회 (본 선교지는 두달마다 발행됩니다)

1996년 10월

요람속의 고양이



Harry Chapin

어느날, 내게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에 왔지만, 그러나 아이에게는 홀로 밟아야할 단계가 있었고 지낼해야 할 계산서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내가 알지 못하는 동안 결음마를 배웠습니다. 나는 항상 바쁜 사람이었기에 아이가 언제 그런 것들을 배웠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늘 내게 말했습니

“아빠, 나는 이 다음에 크면 아빠 같은 사람이 될래요. 아시겠죠? 난 반드시 아빠 같은 사람이 될거예요.” 아이가 물었습니다.“아빠! 언제 집에 오실거예요? 내가 대답했습니다.“글쎄, 바빠서 잘 모르겠구나. 하지만 아빠가 시간이 나면 그때 함께 놀자꾸나. 그때 우리는 즐겁게 놀수 있을거야.”

어느날, 열살이 된 아들이 말했습니다.“아빠, 공을 사주셔서 고마워요. 오늘은 정말 함께 놀아주세요. 그리고 공 던지는 법도 좀 가르쳐 주세요.”내가 대답했습니다.“애야, 오늘은 안된다. 오늘은 할일이 너무 너무 많거든.”그러자 아들은 알았으며, 혼자 공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나는 이 다음에 크면 아빠 같은 사람이 될거야.”

아들이 물었습니다.“아빠, 언제 집에 오실거예요? 내가 대답했습니다.“글쎄, 오늘은 바빠서 늦을 것 같구나. 하지만 아빠가 시간이 나면 그때 아빠랑 함께 지나자꾸나. 그때 우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거야.”

세월이 지나 어느덧 아들은 대학생이 되었습니

다.

내가 먼저 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아들아!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이리 와서 내 곁에 앉아 보렴.”아들이 머리를 저으면서 미소 띤 얼굴로 말했습니다.“아빠! 제게 지금 필요한건 아빠 자동차 열쇠입니다. 물론 빌려 주시겠죠? 그럼 나중에 보여요.”

세월이 흘러 나의 머리가 점점 더 희어져 갔다. 아들에게 물었습니다.“아들아! 언제 집에 올거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글쎄요, 아버지. 바빠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한가해지면 그

아브라함 헌신예배 드려

○...지난 9월11일 아브라함(각 구역 기도사명자) 헌신예배는 YMCA 4층 강당에서 서울구치소에 근무하는 박효진 장로를 초청, 간증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많은 성도들은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다. 한편 10월16일 삼일기도회 시간에 다시한번 박효진 장로를 초청, 간증의 시간을 갖는다.

특별기고·교인동성

(3)

에틀란타 올림픽 반상

이윤철 집사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힘이 센 나라 미국의 애틀란타에서 100주년 기념 올림픽이 열린다고 했을때 많은 사람들은 기대와 함께 의아함을 느꼈다.

100주년 기념 올림픽이라면 발상지인 아테네에서 개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그럼에도 코카콜라와 CNN 본사가 있는 애틀란타에서의 올림픽은 그 세계적 다국적 기업인 코카콜라와 방송계의 신화 CNN의 힘과 실력, - 주간 방송사는 미 MBC였다 - 나아가 미국의 거대한 파워를 경의시켰기에 아테네 불우자의 땀과 함께도 막대한 재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망, 그 자체였다.

우선 가진들이 열악한 시설에서 3시간씩 줄을 서서 받아야 하는 ID카드 발급에서부터, 애틀란타 도심 방송센터에서 고속도로로 30분 거리에 있는 숙소, 게다가 더 먼곳에 있는 숙소들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걸리는 2시간 가까운 Shuttle-Bus의 운송 등, 폭폭 짜는 날씨와 함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는 하루가 채 필요하지 않았다.

이런류의 푸대접은 선수들에

게까지도 별반 다를 바 없었다. 이런 여건은 시차, 날씨, 음식 등을 극복하는데 중앙권 선수들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했고, 서구권이나 아프리카 선수들에 비해 저조한 성적으로 나타났다. (기술보다는 체력이 좋고 날씨에 비교적 적응이 된 나라 선수들에게 유리했다.)

정교도들이 세우고 프론티어 정신과 중요한 자연 환경으로 벌써 한세기 전부터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아메리칸 드림의 대상인 나라,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라고까지 불리온 미국 그들은 이제 그들 상상들의 신실한 믿음과 그 바탕에 따른 생활, 그리고 기도로 얻은 하나님의 복을 거만과 무례함으로 잃을 때가 돼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뜻 (God's Will)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올림픽 100주년 기념공원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 새벽 3시에 열린 비상 전화에 뛰쳐 나가면서 다시한번 되물었다. 지난 TWA가 폭파사건에 이어 이번 애틀란타 올림픽은 정말 테러올림픽인가. 미국의 무례와 거만에 대한 경고인가. 아니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인가. 아무튼 종군기자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취재정신을 조금이나

마 이해하면서 잇따른 생각이 떠올랐다.

어떤 상황에 처하면 Out Sider들이 피상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은 호사스러움이다. 그래서 전정터에서 돌격 앞으로가 가능하겠구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인간은 나방이 불을 보고 뛰어들듯, 그런 역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폭발사고후 IOC와 조직위원회의 기자회견에서 그들은“The games go on”을 주장(?)했다. 그리고 조금은 겸손해진채 열심한 검토 검사를 하며 올림픽을 마쳤다. “그간 테러쯤! 사람이 몇백명 죽고 부상사고가 크게 보면 별대수지”라고 치부하는 건 아닐까. - 결코 그럴리는 없었지만.

그들은 다시 미국 건국사의 청교도 정신과 생활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만 인류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경고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니! 우리 온 인류가 올림픽 본래의 정신과 뜻을 돌아와 화합하고 사랑을 겸손히 추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것이다.

“The human being goes on”

2 / 교인동성 /

〈개요〉

▲한병호 집사: 가정용 전자제품 카이노스통신 (518국5643)

▲최종민·이해국 집사: 한서 추어탕(무역전시관 뒤편, 555국3759)

▲김영봉 집사: 삼원유업(주). 유입구·공업기부품 및 제작 (633국1964)

▲이종석 집사: A-ONTE컴퓨터, 컴퓨터 제조·제2금융권 전산System·모토로라 대리점 등 (542 국7774)

▲하승락 집사: 아시아나 여행사(525국2480)

▲김형진 집사: 그린폴프 숭(충무로2가 라이온스호텔 옆 272국 5088)

▲김진규 집사: 현대 공공인중계사(송파구 삼전동4동40075)

〈이 사〉

▲김영봉·오영실 집사: 교양시업산구 일산4동 1350-14

▲임동진 장로·권미희 집사: 용인동 기흥읍 고매리 409-70 기흥 동아빌라 103호

〈출산〉

▲유창근·전구환 집사: 득남

▲이현웅·최경아 집사: 득남

▲정일웅·양금숙 집사: 득녀

선교회 소식

(5)

뇌성마비 아동마을서 가족동반 봉사

제2남선교회·남성성가대

제2남선교회와 남성 성가대는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소재 중증 아동요양소인 (한사랑 마을)에서 지난 9월15일 가족동반 봉사의 시간을 가졌다.

이곳은 뇌성마비 아동 130여 명이 숙식하는 곳으로서 사람이 없이는 도저히 손을 맞잡고 봉사하기 힘든 곳이다. 참성한 모든 성도들은 봉사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체험했으며 정기적으로 봉사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TAMA 합주단 초청 12월1일 찬양예배 연주

남녀연합선교회는 12월1일 저녁 찬양예배를 YMCA강당에서 일본 TAMA합주단 합주단을 초청, 예배를 가질 예정이다.

TAMA합주단은 일본 동경 다마지역에 사는 주부 30명으로 구성된 합주단이다. 이 연주회를 통하여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많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있다.

김창숙 선교사 기도모임

캄보디아 기아대책기구에서 파송된 제5여성선교회원 김창숙

“독서의 계절”

-신앙서적 안내-

1. 예수에 관한 12가지 질문 (민음의 글들 148)

-미용에 관한 책, 유선명 옮김

2. 내 잔이 넘치나이다. (민음의 글들 149)

-정연희 권사 장편소설-

“운동을 통한 친교를”

헤브론회



헤브론회는 운동과 더불어 친교와 봉사를 하는 모임이다. 이 모임은 매월 마지막 수요일 (보체주) 오전 8시 경에 회관 옆의 건강과 친교를 위하여 88 C.C에서 모임을 갖고 있다. 편식이 있는 교우는 매일 마지못해 수요일 새벽기도가 끝난후 단체로 출발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충무 윤의탁 집사(556국 5947)나 정기권사 박영준 집사(545국1466)에게 신청하면 참석할 수 있다.

주방부에서 알립니다

매주일 한반도 거르지 않고 새벽부터 봉사하시는 집사님·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장물 때에 차량봉사를 주시는 권사님, 그리고 식당 바닥 청소해 주시는 집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국수를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볼 때 저희 주방부 식구들은 참으로 보람을 느낍니다. 이따금 봉사를 하지 않게 되므로 미안해서 국수를 먹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런 생각까지도 언제든지 맛있게 드십시오. 저희는 매주일 천고뜻이 넘는 국수를 만들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국수를 맛있게 드시는 것을 보면서 일하는 보람을 더욱 느낍니다.

다만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선여고 식당이 YMCA 선교관에 비해 훨씬 넓어 주방부에서 봉사하는 일손이 부족한을 느낍니다. 주방봉사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주방부에서는 힘든 만큼 3부예배가후의 배식기 끝난후 식당청소와 쓰레기 처리에도 남지성도님들의 손길이 부족합니다. 동참을 희망하시는 분은 회화나 남측권권사(564국6296)에게 연락바랍니다. (식당은 정선여고 지하실에 있습니다.)

(2)

신앙상식

말은 인격이며 때로는 사람의 의식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좋은 말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말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도 결국은 좋은 인격의 소유자로 성장하기를 바라기 때문일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언어생활 가운데 꼭 고쳤으면 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기도는 반드시 현재형으로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과거형으로 하는데 긴 설명 필요없이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 “...영원이 있사옵나이다”라고 현재형으로 마귀를 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보더라도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이것 저것 요구해 놓고 “기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마귀를 하면 마치 옆에 있는 아내에게 “여보 미안 하지만 물 한잔만 갖다 주세요.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으니 시제가 맞지 않습니다.

둘째, 예배는 보지말고 드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없이 “예배를 보러간다”고 말합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무엇을 볼까요? 목사님의 외모, 옷, 단상 의 장식... 이런 것들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만을 보기 위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요. 그러나 서두에 언급했듯이 말은 우리의 의식까지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계속 보러 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경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킨 제임스 성경, 요 4:24 ...그 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러야만 하리라)

셋째, 어휘 문제입니다.

1) 일요일은 ‘공일, 즉 쉬는 날의 의미가 강합니다.

크리스천의 언어생활

최창섭 집사

따라서 크리스천들은 주님의 날을 기억한다는 마음으로 ‘주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보다 은혜스럽습니다.

2) 축복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복을 빈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정확히 사용해야 하는 까닭은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보다 더 상위의 신에게 하나님이 복을 빌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꼴이니 하나님을 비하시키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에게 복이 임하기를 기도할 때는 “하나님 ○○○를 축복합니다” 또는 “하나님 ○○○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축복

을 많이 받았다는 말도 바른말이 아닙니다. 그저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창 9:1, 12:3, 28:1)

마지막으로 발음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에 일일이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설교자에게는 이 문제가 더욱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몇가지만 예를 보겠습니다.

1)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 2:3)에서 ‘낮게’는 반드시 길게 발음해야 합니다. 만약 짧게 발음하면 ‘낮게’가 되어 그 뜻이 정 반대가 됩니다.

2)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사 127:3)에서의 ‘상급, 발음.

3) “...너희 화강한 것이”(렘 4:30)에서의 ‘화강, 발음 등. 장·단음을 정확히 발음해야 할 것은 이것 외에도 많습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가끔은 필그런철 다 따지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좀 상스러운 말을 해도 나무랄 필요가 없겠지요. 뜻은 통하니까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요 마음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말을 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워질 수도 있습니다.

◆ 주님의 교회 남녀연합선교회 안내

우리 주님의 교회는 아래(표)와 같이 연 등록하지 못한신 교우는 등록하셔서 알찬 형태로 선교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직 봉사의 기회를 가지십시오.

출생연도	남선교회	회장 및 연락처	여성교회	회장 및 연락처
1945년 이전	제 1 남	이지화 집사(553국 4052)	제 1 여	전영선 집사(0342 705국 8006)
1946~ 50년	제 2 남	조원호 집사(572국 2545)	제 2 여	김경희 집사(592국 6657)
1951~ 55년	제 3 남	김성구 집사(502국 7452)	제 3 여	박순실 집사(817국 4759)
1956~ 60년	제 4 남	이종갑 집사(3452국 5749)	제 4 여	심유선 집사(3452국 5749)
1961~ 65년	제 5 남	황정연 집사(603국 0708)	제 5 여	김영림 집사(504국 1074)

(4)

교회 소식

장로 안수집사·권사 피택

지난 9월22일 1:2:3:4부 예배 후 장로 5명·안수집사 10명·권사 10명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열렸다. 이어서 9월29일 실시된 신임투표에서 장로 4명, 안수집사 9명, 권사 10명이 피택됐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 <장로>권오승·김경선·성백술·한윤경 <안수집사>김경민·김성구·김성배·류달현·유종화·윤좌원·정광재·최성인·최창섭 <권사>권미희·김경희 A·김영아·김원경·김은정·변아정·윤용자·양한민·이승애·이혜자

학습·세례·입교식

10월23일 수요일기행

10월23일(수) 학습·세례·입교식이 거행된다. 이를 위한 분담 공부가 9월 마지막 주일 (29일)부터 정선여고 소강당 5층에서 4주간 실시되고 있다.

청년연합체대회

지난 9월22일 남포교회와 주

남의교회 청년연합체목회회가 정선여고 운동장에서 열렸다.

남성 성가대 동침요망

남성 성가대는 둘째, 넷째, 다섯째 수요일에 삼일예배 찬양을 드리고 있다. 그러나 현재 참석 인원은 평균 20명 수준으로, 대원이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찬양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받기를 원하는 분은 언제든지

집사(281국8075)나 한상근 집사(515국7431)에게 연락하면 된다.

부부·개인성신 성지순례

여성교회, 참석희망집수

여성교회에서는 11월20일경부터 부부 및 개인을 대상으로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다. 많은 성도도 참석해서 주님의 발자취를 흠뻑 음미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관심이 있는 분은 김경희 A 권사(592국6657)나 강은애 집사(554국6305)에게 연락하면 된다.

2 / 환대평양 선교대회 개최 /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형제교회를 주셨는데 이 형제 교회들은 지구를 놓고 보면, 묘하게도 대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륙의 형을 하나인 나라의 확장, 형제 교회들간의 상호 이해증진 및 협력강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새로운 헌신을 위한 귀한 결단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1. 행사 명: 환대평양 선교대회

2. 날짜: 1996년 10월 7일(월)~ 9일(수)

3. 시간·장소: 매일 저녁 8시. 서울 주님의 교회 교육관 2층

4. 강사: (월) 박환우 목사 (중국 천진한인교회)

금상호 목사 (코스타리카 시온한인교회)

(화) 이성민 선교사 (캄보디아 기아대책본부)

변용진 목사 (미국 남가주 주님의 교회)

(수) 김만근 목사 (러시아 블라가웨신스크 주님의 교회)

이동규 목사 (뉴질랜드 주님의 교회)

남의교회

담당목사: 김만근 목사

전화: 7-4212-372986

▲캄보디아 기아대책본부

이성민 선교사

전화: 855-23-360765

▲중국 천진한인교회

담당목사: 박환우 목사

전화: 8622-239-7286

▲미국 남가주 주님의 교회

담당목사: 변용진 목사

전화: 310-926-6799

▲러시아 블라가웨신스크 주

(6)

특별기고

말을 위한 기도

이해인 수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조용히 헤아려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서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더러는 허풍으로 사라지고, 더러는 다른 이의 가슴속에 좋은 열매를 또는 인연은 열매를 맺고 있을 인연의 나무.

주여, 내가 지난 언어의 나무에도 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주고 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령주려 달려 있습니다.

듣곤 것, 모난 것, 밝은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있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물립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할 말은 참 많은 것도 같고, 적은 것도 같고 그러나 말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살이.

매일 매일 펼쳐된 차고 단단한 결심을 해도 슬기로운 말의 주인이 되기는 얼마나 어려울지...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주여,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우치게 하소서.

헤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겸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위있는 한 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을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도를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언제나 책임있는 말을 갖고 닦게 하소서.

내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지껄이지 말고 도와주머니를 좀 더 겸허하고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분별있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내가 어려서부터 말로 저지른 모든 잘못, 특히 사랑을 위선의 말들을 주여, 용서하소서.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 언어의 집을 짓게 하시며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노래처럼 즐거운 삶을 당신의 은총속에 이끌어 가게 하소서.

(변호사의 간증 중에서)

김완중 집사

장기기증

의학의 발달은 급기야 중추신경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장기 및 조직의 이식을 가능케 했다. 세계 3대 미성을 가진 테너 호세카레라스는 몇년전 백혈병으로 죽음의 직전에 있다가 골수이식으로 건강을 되찾았다. 또 최근 성대 바우만군도 같은 치료로 현재 회복상태에 있다. 이식술이 고도로 발달되어 현대의 학의 꽃이라 하지만 이제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치료의 한 방법인 것일 뿐이다. 우리에겐 풀어나갈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를 던져주고 있지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겐 틀림없다. 여러가지 질병으로 죽어가는 환자가 장기기증을 받고 건강하게 회복하는 과정을

최창섭 집사 (의료선교부장)

옆에서 지켜보는 것은 가슴 뭉클한 감동의 드라마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식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의 하나는 장기수급 문제이다. 지금의 선진국에서는 폐지의 장기를 사람에게 쓸 수 있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폐지의 간을 사람에게 주었을때 그 간이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제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21세기전에 이루어질 예상이나 이식된 간에서 나오는 폐지의 단백질, 또는 폐지에만 있을 수 있는 질환 등이 우리 인간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은 우려만은 아닐 것이다. 위런 모든 노력도 장기기증이 장기기증을 필요로 하는 수급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인구 약 100만 명당 10~ 20명의 장기가 제공되

고 있어 약 30% 정도의 장기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기다리다가 죽어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약 10분의1 정도의 수준에도 못미쳐서 아직도 뉴스거리가 될을 가끔 볼 수 있다.

이제는 죽은 사람 판단에 거금을 넣는대든지 값비싼 장선구를 넣는 사람을 얻을 것이다. 몇 주만 지내면 필요한 육체를 생명의 도구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지 않고 간단면, 주변앞에 나가기 전에 주님께선 좋아하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로서 스스로 재버리는 것이 될 것이다.

이제는 외국에서는 건강할때 이런 문제도 서로 상의해서 의중을 서로 교환하고서 권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어려운 시기에 더 어려운 낯은 자를 생필할 수 있는 믿음이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하다. 크리스천인 우리가 나서지 않는다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